

갈수록 감소 중국수출 위기 타개위해

한·중 FTA 효과 이용해야

2013년 8.6%였던 수출증가율 올 1분기에 -15.7%로 급락... 관세철폐에 돌파구 기대

최근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구조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증가율은 지난 2010년 38.9%에서 지난해 -18.4% 그리고 올해 1분기 -12.7%까지 떨어졌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증

가율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8.6%였던 수출증가율은 올해 1분기 -15.7%로 급락했다.

최종재 부문에서의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 최종재 수출액은 2000년 27억 달러에서 2014년 362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2010년 이후부터 전체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자본재와 소비재 비중은 하락 또는 정체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본재 수출 증가율은 2010년 전년대비 37.3% 증가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에는 -8.2%로 계속해서 추락했다.

전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중국경제팀 선임연구원은 "자동차, 가전, 휴대폰 등 최종 소비재에 대한 중국 현지 생산·유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당 소비재의 중국 수출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기계, 장비 등 자본재의 경우 중국 자체의 제품기술력 향상 등으로 인한 자급률 상승으로 이미 수출 수요 감소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진수 기자



옥시 아웃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전국 주요 대형마트에서의 옥시제품 판매 즉각 철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어·오리 등 보양식 '인기'

5월 이른 더위에 수요 급증

최근 몇 년간 5월부터 낮 최고 기온이 25도를 넘기며 초여름 더위를 느끼는 날이 많아지는 가운데 장어, 오리고기 등 보양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5월 매출을 직전달 매출과 비교한 결과, 주요 수산 보양식 중에서는 장어의 매출이 전월 대비 3.3배(228.5%) 가량 증가하며 문어, 낙지 및 전복의 신장률을 제쳤다.

롯데마트 측은 "장어는 다른 보양식보다 손질하기 번거롭다는 인식으로 인해 전문 식당 위주로 소비됐던 품목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고가의 외식 품목이기 때문에 가계 지출을 줄이게 되면서 장어 외식 수요를 대형마트가 흡수했다"고 설

명했다. 또 대형마트에서 손질할 필요가 없는 장어를 저렴하게 취급하게 된 점도 주요 매출 증대 원인으로 꼽았다.

축산 부문에서는 오리고기의 5월 매출이 전월 대비 58.3% 늘었다. 돼지고기, 한우 등의 5월 매출은 나들이철을 맞아 전월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하지만 대부분이 20% 미만의 신장률을 기록하는 반면 오리고기만이 50% 이상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오리데이" (5월 2일)의 영향과 함께 다른 축산 품목들에 비해 보양식의 이미지가 더 강한 오리고기의 특성도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리고기의 연 매출은 닭고기 매출의 36.0%에 불과했으나 5월 매출은 46.6%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인진수 기자

전북개발공사-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상호협력 협약 체결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기성)은 전라북도 발전과 양기관 상생을 위해 지난 13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지원에 적극 협력하며,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사내·외 교육 및 저자의 인권 주권을 위한 인문학 강의 등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적극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전북개발공사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성공적인 전북혁신도시 정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행정지원, 모향해 나무가족호를 통해 임직원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전라북도 발전 및 지역인재 채용, 지역자재 사용, 임대아파트 도서 기증, 열린도서관 공동 이용을 통한 문화활동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나눌 것을 약속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전북개발공사 고재



양기관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지원에 적극 협력하며,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인문학 강의 등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시책을 적극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찬 사장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기성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자 서로 다른 영역에서 축적해 온 많은 강점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양기관의 상생과 전라북도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전북유치를 위해 2015

년 전북혁신도시 내 공동사무실을 신축했다.

또 지난해 7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교류 필요성을 공감하고 상호 협력에 대한 뜻을 같이 한 이래 임대주택, 도서관, 지역출판 전문가 양성과정 참여, 인문학 합동 강좌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신광명 기자

익산국토청, 위기철 앞두고 24시간 비상근무 돌입

익산국토청이 본격적인 위기철을 앞두고 15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익산청 산하 4개 국토관리사무소(광주,순천,전주,남원)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기상상황에 따른 비상근무대세에 돌입했다.

이들 기관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동안 기상상황에 따라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로 구분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세부적인 활동으로는 국가하천 구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활동도 전개한다.

또한, 풍수에 대응업무매뉴얼을 정

비, 기상상황에 따른 근무자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실제상황발생 시 신속히 초기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하대성 익산국토청장은 "철저한 사전 대비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신속한 조치만이 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전 직원들이 수해 발생시 각자가 해야 할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수시 모의훈련 등을 통해 수해 대응 능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했다.

신광명 기자

전북지방중소기업청 농공상 융합형 기업 모집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농공상(農工商)융합형 중소기업'을 신규모집한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이란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 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연계하여 고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전북지역은 2015년 현재 38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번 신규 선정된 업체는 중소기업청과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동으로 저리의 시설·운영자금 융자, 기술개발 및 컨설팅 지원,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우수제품 TV홍소평 입점지원 등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융합형 중소기업으로서 농업인(단체)과 협력해 '농공상 융합사업계획'을 수립한 기업이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1일까지 이메일(k-food@ator.kr)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광명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부 중기협동조합 애로사항 청취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현준)는 지난 13일 정일택 전북지방중기청장을 초청해 전북지역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로 28회째인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국민경제 역할과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협동조합 운영 활성화 및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전북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은 ▲중소기업제품구매비율 상향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고용부담금제 도입 철폐 ▲자동차정비업체의 자기부담금 수납시스템 개선 등을 전북지방중기청장에게 건의했다.

정일택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은 "건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도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소되고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준 전북지역본부장은 "전북지방중기청의 다양한 지원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전북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신광명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입주기관 '소통'

공동관심사의 논의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백두옥)은 지난 12일, 전북테크노파크 정문 일대에서 전북테크노파크에 자리하고 있는 입주기업과 기업지원기관 재직자 150여명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평소 바쁜 일정으로 왕래가 적었던 기업 임직원들이 공통의 관심사와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전북테크노파크 입주기업협의회 김태영 대표(유)엔텍코리아 대표는 "행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기업 간의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매출

이 발생 가능한 공동사업 발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북테크노파크 백두옥 원장은 "전주첨단산업단지내 입주기업 간의 정보교류와 소통의 장이 됐다. 앞으로도 도내 입주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과 기술융합이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테크노파크는 테크노빌 A/B동, 벤처지원동(전주 팔복동), 과학기술진흥센터 창조관(완주군), 스마트융합기술센터 의료융합테크노빌(익산 합영읍)과 같은 입주시설을 운영해 현재 총 7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있다.

신광명 기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